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광양서 아웃도어 취향대로 즐기세요

백운산자연휴양림, 금천계곡야영장, 구봉산 숲속야영장에서 즐기는 캠핑, 캠프닉

광양시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아웃도어 공간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인기가 높은 백운산자연휴양림, 금천계곡야영장, 구봉산숲속야영장을 대표 공간으로 추천했다.

백운산 자락에 동지를 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때 묻지 않은 원시림과 식물생태숲, 황토길,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박물관 등을 갖춘 웰니스 복합문화공간이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종합숙박동, 카라반, 캐빈하우스, 야영데크, 카라반사이트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마련돼 있어 취향에 따라 숲강스와 숲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야영장은 취사장 우수 공급, 신축 화장실, 야영 데크 규격 확대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면서 캠핑족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운산 금천계곡 끝자락에 자리한 금천

계곡야영장은 청정한 계곡과 맑은 섬진강,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캠핑환경으로 캠핑족의 발길을 끈다. 오토캠핑장 24면, 카라반 3면, 캠핑 2면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관리동을 비롯해 샤워실, 공용취사장, 놀이터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금천계곡에서는 물멍과 물놀이를, 숲이 우거진 다담평촌공원에서는 호젓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운무에 휩싸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리산 자락과의 눈맞춤도 특별한 감성을 더한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칭) 내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종 규모로 웰컴센터, 손수레보관소, 취사대, 무료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탁 트인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보석상자를 열거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야경, 별밤의 감성은 낭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저격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이 갖춰진 캠프



크닉 전용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가볍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관리동인 웰컴센터에서 커피, 음료, 라면, 핫반 등 캠핑에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하며, 인근 상가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금천계곡야영장과 구봉산숲속야영장은 실시간 예약 플랫폼 '캠핏' 또는 전

화(010-7930-0071)로 예약할 수 있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캠핑 인구 700만 시대에 광양은 수려한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으로 캠핑족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숲경, 물멍, 놀멍을 비롯해 특별한 순간과 추억을 선사할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아웃도어 여행으로 힐링과 감성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농촌왕진버스', 의료사각지대 해소 앞장

7~9일 황룡농협 대회의실에서 운영... 500여 명 의료혜택

장성군 '농촌왕진버스'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황룡면을 찾았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동화·황룡면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양방, 눈검사(검안)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립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함께 주최하고 장성·진원·삼계·황룡농협이 각각 주관해 총 네 차례 운영한다.

황룡농협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이번 '농촌왕진버스'는 앞선 진원·삼계농협에 이어 열린 3회차 행사다. 동화·황

룡면민 500여 명이 왕진버스를 찾아 건강상담, 수액주사 처치, 눈검사 등을 받았다.

'농촌왕진버스'를 찾은 주민 박모씨는 "그간 병원 가기가 힘들어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호평했다.

4회차 '농촌왕진버스'는 오는 10월 장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한 복지, 군민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해 행복하고 건강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만의 원형 생태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단순한 조망을 넘어 원시적인 자연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한눈으로 응축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용산전망대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지어졌으며, 건축면적은 124.88㎡이다.

순천시, '새 용산전망대' 개방... 생태치유관광의 거점 기대

또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용산전망대 진입 구간 약 908m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망대에서는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흑두루미 도래지 등 순천만의 대표 생태 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탐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도래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연 기반 생태치유관광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 및 향후 조성될 순천갯벌치유관광플랫폼과 연계해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업무 특성상 야외 활동이 많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현장에 찾아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7월부터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활근로 참여

영광군, 폭염 대비 자활근로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시간 조정 및 폭염 시간대 실내 활동으로 대체 ▲냉방시설이 설치된 휴게 공간 제공 및 휴게시간 준수 ▲폭염 대응 물품 준비 상태(얼음 생수, 포도당 환 등)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참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냉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 교육 등 안전교육도 병행하였으며, 탈수 및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이온음료를 지원하여 참여자들의 안전을 세심히 살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폭염은 특히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남에서 살아보기' 1기 프로그램을 지난 6월 30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주민과 교류하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기 참가자 5팀(6명)은 올해 4월

"도시 탈출! 무안에서 살아보니 진짜 살 만하네!"

'전남에서 살아보기' 1기 수료... 3개월간 농촌 체류 마무리

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무안군 청계면 '월선체험휴양마을'에서 생활하며 무안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농작물 재배 ▲지역 주민과의 교류 ▲농촌 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군은 참가자에게 숙박비, 프로그램비,

연수비, 운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현지 마을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안정적 체류를 도왔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1기 과정을 통해 무안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

산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며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을 통해 도시민이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포털인 '그런대로'를 통해 7월 7일부터 2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도시민들이 더 많은 체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총력 대응

근무시간 조정·예방 물품 지급 등 섬세한 근로자 보호 대책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근로자인력중개센터(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곡농협)와 함께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아래 야외 근로자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을 농가에 권고하고 있으며,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곡성농협 외국인근로자인력중개센터는 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재협의 중이며, 쿨터와 작업복 등 폭염 예방 물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하우스 내 물고랑 확보 등 자

체적인 온도 저감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 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폭염 대응 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석곡농협은 일부 농가에서 근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해 한낮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전에는 농가에 폭염 대응 수칙을 사전 안내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농가와 협의해 조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절실하다"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는 물론, 작업일지 기록 철저, 온열질환 민감군 집중관리, 휴식 알라미 스티커 배부 등 지속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